

교회 목표

신앙에 예배
친구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베를보서 1:21)

대한예수교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 2003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란 편집국장: 이형수

2003년도 제 2차 정기가운편 메시지

“위엿 것을 생각하라”



첫째 날(10월 15일) : 바울의 회심(행 9:1-22)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딤후 3:12).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자신이 고난의 길을 걸으셨고 우리에게도 같은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행 8:32, 마 5:10). 그러므로 이 길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존경과 인정을 기대하는가? 이 땅에서의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기대하는가? 아니다. 당신이 기대하여 할 것은 박박과 고난이다.

본래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잔인하게 박박하던 파바네 나니는 박박자였는데(행 9:1-2), 그러나 다메스 도살장이 그를 찾아주신 예수께서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박하느냐?”(행 9:4)라고 말씀하셨고, 거기에서 사울은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다. 그곳은 종교적 열심 때문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박박하는 모악한 박박자 바울 그 자신이 사울이었던 것이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지 않는 인간의 종교적 열심이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게는 경고와, 민족과 사회를 사랑하며, 도덕과 윤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이 특별하더라도 결국 주님을 박박하는 사람들이다. 당신은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를 박박하는 사람은 아닌가? 아니라고 할하기 전에 먼저 당신 자신을 자세히 살펴보라.

예수께서는 바울의 죄와 자수성가한 상처를 그에게 보여주시므로써 기고만만하던 박박자 바울을 굴복시키셨다(행 9:25).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비로소 깨달은 사울은 당시의 가책과 영혼의 격동과 죄의 고뇌로 잠바라잡고 식음을 전폐하여 기도하기 시작하였다(행 9:8-11). 자신의 비참함과 그리스도에 대한 절실한 필요를 ‘뱃속 깊이 깨닫고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드리는 진실한 기도’ 당신에게도 이런 기도가 있는가? 혹시 이 세상의 축복을 구하는 것만 급급한 사람은 아닌가? 당신의 기도가 정말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기도인지 살펴보라.

주님은 기도를 사울을 찾아주셨다. 그런데 주님이 사울에게 처음 말씀해 주신 내용이 사울 놀랐다. 왜냐하면 주님은 사울이 주님을 위해서 장차 받아야 할 고난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다(행 9:15, 16). 그러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제일 먼저 기대해야 할 것은 축복이 아니라 고난이다. 박박과 열심이다. 창천과 영광은 그 모든 고난을 통과한 후에 주어지는 것이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보고는 우리의 받은 고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이여, 주님을 위해 잠시 받는 고난을 피하지 말도록 하라.

이제 그리스도를 만난 사울은 대제사장인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가 자신의 이전 악행을 회개하고 공사를 구했으며, 사울은 예수가 하나님께의 이름으로 사탄에게 사직하였던(행 9:20, 21). 자기 자신의 의지와 자존심과 명예를 위해서 살던 삶에서 돌이켜 진정으로 주님의 영광 앞에 쓰러지듯 항복하는 삶이 된 것이다. 이전에 그의 마음과 의지가 있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적대감이 무너진 것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가?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적대감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믿음을 통하여 무너지고 그리스도에 완전히 항복하는 이 변화된(행 1:6) 이런 확실한 변화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진정한 박박자 사울을 변화시켜 주신 예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찾고 계신다(사 1:18).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자존심과 명예와 이름을 위해서 살았던 삶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자. 사울처럼 식음을 전폐하고 ‘주여, 누시옵나니?’ ‘주여 무엇을 하리요?’라는 물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둘째 날(10월 16일) : 옥중에서 부르는 찬미(행 16:25-26)

바울과 실라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빌립보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들이 그곳에 안간 것은 엄청난 반박과 박박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전하는 십자가 복음이 많은 사람들을 분노케 하고 요양케 한 때문이다(행 17:6). 십자가 복음은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할 때 이 세상은 회개함으로써 오�히려 우리를 박박하기 위하여 파멸이 되든지 돌종 중의 하나이다. 세상을 요양케 하기 못하는 기독교는 죽은 종교에 불과하다. 우리 교회는 십자가 복음으로 세상을 요양케 하는 교회여야 한다.

바울과 실라는 세상을 요양케 하는 죄목으로 매를 맞도록 밧고 감옥에 갇혔다. 벌이 길어질수록 그들이 느끼는 고통과 아픔도 커졌다. 사형 언도를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소망의 빛을 전혀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밤중에 되었다. 그러다, 복음을 듣고 바울이 나가 전하면 이런 ‘한밤중’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다. 고통이 깊어가는 한밤중 소망의 빛이 전해 오는 한밤중! 이런 한밤중이 우리게도 수고 수 있다. 선과 사악이 언제나 한밤중에 무사하게 끝나나니 한 다고 생각지 말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큰 고난에 빠지는 한밤중에 수고 수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한밤중을 위하여 큰 고통을 견디고 낙심한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보라, 그들 은 오�히려 한밤중에 찬미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 드렸다(행 16:25). 어떻게 그들은 기도와 찬미의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일까? 그들은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더 철

저하게 깨달을 수 있었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되었다 때문에 한밤중에도 찬미할 수 있었다(고후 15:8,9).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언제나 순탄한 결과 성공만 바라는 자 땅에 작은 어려움과 고난 일에서도 불평하며 원망하는가? 아니다. 한밤중에도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의 선과 사역도 끝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들의 찬미와 기도를 통하여 그들의 사역은 새롭게 시작되었다. 아니, 그것은 단순히 찬미와 기도로 시작된 사역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그들의 진실한 마음을 통하여 시작된 사랑의 사역이었다. 옥에서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는 아적이 일어났을 때, 도망치지 않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려 했던 사랑의 마음! 그 날 자기들을 옥속하게 매달렸던 잔혹한 간수장을 구원하게 했던 사랑의 마음! 이런 사랑의 마음으로 인해 그들은 그 간수장을 그리스도에 인도할 수 있었고 빌립보에 교회를 세울 수 있었다. 놀랍지 않은가? 우리의 선과 사역도 이런 사랑의 사역이어야 한다. 이전에 주님을 박박하던 우리를 주님이 불러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 우리들을 통해서 주님의 그 구원이 열릴 모든 민족에게 흘러가야 한다. 이 사랑의 사역에 당신의 모든 것을 바치도록 하라.

오늘날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으로 이 세대를 섬길 자들이들은 어떤 이들이인가? 바울과 실라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찬미와 기도를 올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이것은 단순한 용기나 담력이다.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실행로 누리는 믿음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박박을 더 가까이 나아가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입장에 가득하게 하자.

셋째 날(10월 17일) : 관재와 같이 복음이 되고(딤후 4:6-8)

인간적인 판단 기준에서 볼 때, 바울의 삶은 완전히 실패한 삶이었다. 말년에 이르러서도 그는 가난을 면치 못했고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으며 열심과 천대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딤후 4:10, 16). 그러나 바울 자신은 그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두려움 없이 담담히 대하고 있다. “현재(현재)와 같이 내가 복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일이 가까웠도다”(딤후 4:6). 여기에는 잔인한 죽음을 앞둔 자신에 대한 면도 없기까지 죽음 자체에 대한 두려움도 전혀 없다. 오�히려 바울은 자신의 죽음, 관재에 비유함으로써 자신의 죽음이라지도 하나님께 드러지는 희생 제사하기를 원했고, 또한 죽음을 떠나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마지막 여행으로 그리스도께서 그 여행의 인도자이심을 굳게 믿고 있었다. 이런 믿음 때문에 그는 학살과 소망 가운데 죽음을 바랄 수 있었던 것이다. 당신도 이런 믿음으로 죽음을 바랄고 있는가? 바울처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하느님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시고 믿음으로 순복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맡기고 우리의 생명을 내어 드려야 한다. 이것이 청지기기의 삶이다.

바울이 이처럼 두려움 없이 죽음을 대할 수 있었던 것은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회개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 믿음을 일평생 지켰기 때문이다(딤후 1:12, 행 20:24, 유 21절). 그는 자기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구애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달음질했으며,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철저히 의지하였고, 자기에게 맡겨진 보배로운 믿음을 잘 간직하였었다. 그 결과 이제 그는 소망과 학살 가운데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바울 때로는 그러지고 넘어지며 실패와 축복을 거듭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이 은혜!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결과이다. 당신의 마음과 삶 속에서 이런 믿음이 확고하게 서 있는가?

이디 그분만이 바울은 장래에 있을 영원한 승리를 내다보며 한없이 기뻐하고 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만 예비되었으므로...”(딤후 4:8). 바울이 기대한 면류관은 인간의 노력이나 투쟁으로 얻은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단순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얻은 면류관이었다(베후 3:8, 롬 1:16, 17).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업적과 행위를 자랑하며 영원히 자기를 면류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날에 주님의 면류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소유하고 그 의를 완성하며 살아온 사람들에게 주어질 ‘의의 면류관’이다. 그 날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의의 면류관은 주님 자신의 것이요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다. 우리에게서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선물이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바울처럼 소망과 학살으로 삶을 마감할 수 있을까? 대답은 오직 하나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잊지 말라, 우리도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는 것! 때에 이르러서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생물을 죽고 수고, 승리를 맛볼 수 있는데, 죽을 너머 영원한 세상을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살라. 이것이 청지기기의 삶이요, 이것이 소망의 길이다. 우리 길에 걸려 할 것은 오직 이 길뿐이다.

New Testament Church

“And when the day of Pentecost had come, they were all together in one place. And suddenly there came from heaven a noise like a violent, rushing wind, and it filled the whole house where they were sitting. And there appeared to them tongues as of fire distributing themselves, and they rested on each one of them. And they were all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began to speak with other tongues, as the Spirit was giving them utterance.”
(Acts 2:1-4)

The Day of Pentecos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days in church history. For Christians, it is the day that the Holy Spirit came down from heaven and poured Himself upon the church. It is the day that God's reign became spiritually involved with all His children, not just a selected few. It opened the door for us to have an intimate and supernatural experience of God. It brought to the church a new power for ministry. It created a new humanity in Christ. Indeed, the Day of Pentecost was a day of 'new' beginnings, the birthday of the New Testament Church.

The giving of the Holy Spirit to the church took place on a Jewish holy day called Pentecost in the New Testament and Feasts of Weeks in the Old Testament. The Greek name "pentecoste" refers to the fifty-day interval between this holy day and the Passover, Unleavened bread, and First Fruits feasts. Pentecost or Feast of Weeks occurred seven full weeks after the beginning ('first fruits') of the wheat harvest. As such, it marked the end of the wheat harvest(see Nu. 28:26). It was at this time that God's people presented Him with the first fruits of their grain. Whereas the Passover and Unleavened bread commemorated their exodus from Egypt and First Fruits the beginning of their new life, Pentecost or Feasts of Weeks reminded them of God's continued, faithful, and loving care. The Mosaic Law prescribed this sacred day for God's people to remember and follow (see Dt. 16:9-12). It was one of three annual pilgrimages, which they were required to make to the central sanctuary.

Therefore, when we begin today's Bible message, "When the day of Pentecost had come, they were all together in one place. And suddenly there came from heaven a noise like a violent rushing wind, and it filled the whole house where they were sitting", we understand its meaning and significance(vv. 1&2). God's people had gathered in obedience to His Word. They were offering their first fruits from their harvest. The wind from heaven was the Holy Spirit coming. This wonderful happening was God's first fruits of action after the cross, resurrection, and ascension! From the time Jesus instituted the Lord's Supper, to the Holy Spirit's arrival, 50 days had passed. Something new started. God's church was empowered with His Spirit.

The Holy Spirit filled each member of the church. "And there appeared to them tongues as of fire distributing themselves, and they rested on each one of them. And they were all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began to speak with other tongues, as the Spirit was giving them utterance" (vv. 3&4). God's people could now proclaim the gospel. They had the freedom to speak at any place in God's own language, "Now the Lord is the Spirit, and where the Spirit of the Lord is, there is liberty"(2 Cor. 3:17). The church received the ability to speak in a heavenly language. The Holy Spirit, through the church, can convict the world. They can set forth the truth of the gospel in such a clear light that people are able to accept or reject it. John 16:8-11 tells us, "And He, when He comes, will convict the world concerning sin and righteousness, and judgment; concerning sin, because they do not

believe in Me; and concerning righteousness, because I go to the Father and you no longer see Me; and concerning judgment, because the ruler of this world has been judged." Amen.

The New Testament church received the Holy Spirit in their hearts as a seal and pledge from God that He would fulfill His promises (see 2 Cor. 1:22). Ephesians 1:13 & 14 tells us of our security and guarantee of salvation in Christ, "In Him, you also, after listening to the message of truth, the gospel of your salvation—having also believed, you were sealed in Him with the Holy Spirit of promise, who is given as a pledge of our inheritance, with a view to the redemption of God's own possession, to the praise of His glory." When you accept Jesus, the Holy Spirit comes into your heart, and you become God's child. You can eternally praise Him.

The Holy Spirit secures our salvation. He protects us until we meet Jesus face to face. As such, we should never make Him sad, "Do not grieve the Holy Spirit of God, by whom you were sealed for the day of redemption"(Eph. 4:30). My friends, when the Holy Spirit came down upon God's church, His people, He gave us new principles, new laws. No longer do we lead ourselves, but now He leads. No longer do we trust in ourselves, but now we believe in God alone. Our job is to deny ourselves and serve God. Our responsibility is to trust God with, in, and for everything, and worship Him in Spirit and in truth. The Bible tells us, "But when He, the Spirit of truth, comes, He will guide you into all the truth; for He will not speak on His own initiative, but whatever He hears, He will speak; and He will disclose to you what is to come"(Jn. 16:13). We must listen to the Holy Spirit. Jesus told us, "But the Helper, the Holy Spirit, whom the Father will send in My name, He will teach you all things, and bring to your remembrance all that I said to you"(Jn. 14:26).

As Christians, we must listen to the Holy Spirit, not ourselves, and follow Jesus. "The Spirit Himself testifies with our spirit that we are children of God"(Rom. 8:16). Those who belong to Christ have the Holy Spirit. As such, we must be humble to hear His voice and understand spiritual things. The Bible tells us, "But a natural man does not accept the things of the Spirit of God, for they are foolishness to him; and he cannot understand them, because they are spiritually appraised"(1 Cor. 2:14). Those who negatively question the truth of God's Word can't hear His voice because of their pride. How often I hear people say, "How come God did this or that?" Without the Holy Spirit, you'll never understand spiritual matters, but with Him you'll see and understand the most incredible things.

My dear friends, the Holy Spirit coming down from heaven on Pentecost was an important day. It marked the beginning of God's New Testament church. It signaled that we as believers have a new heavenly power for ministry. The Holy Spirit established a new model of redemption as characteristic of life in the new covenant, and formed a new humanity in Christ. Let us remember this day, giving thanks and praise to our God for His amazing love. 

다음주일설교

초대 교회의 탄생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행 2:1~4).



김성만 목사

오순절의 참 의미

오순절은 교회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들 가운데 한 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오순절은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시고 자기 자신을 교회에 부어주시는 특별한 날입니다. 오순절은 선택된 몇몇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영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 특별한 날입니다. 오순절을 기점으로 친밀하고도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문이 우리에게 활짝 열렸습니다. 오순절을 통해서 교회는 복음 전도 사역에 새로운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오순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류를 창조해 냈습니다. 이런 점에서 실로 오순절은 새로운 출발의 날, 곧 초대 교회의 탄생일이었습니다.

오순절의 유래

하나님께서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 날은 신약 성경이 ‘오순절’이라고 부르고 구약 성경이 ‘칠칠절’이라고 부르는 유대교의 성일(聖日)이었습니다. 오순절의 그리스어 명칭 ‘펜테코스테’는 유월절과 오순절 사이, 그리고 무교절과 초실절 사이에 끼어있는 오십 일을 의미합니다. 오순절 또는 칠칠절은 밀 추수가 끝나는 날로서, 밀 추수가 시작하는 날로부터 일곱 주가 지난 후에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날에, 수확한 곡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봉헌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이 출애굽과 새 생명의 출발의 첫 열매를 기념하는 절기였다면, 오순절 또는 칠칠절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신실하고 다정하게 돌보심을 상기시켜 주는 절기였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이 성일을 기억하고 준수하도록 명령했습니다(신 16:9-12). 오순절은 그들이 일 년에 세 차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반드시 준수해야만 하는 세 가지 절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성령의 강림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오순절의 의미와 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1,2절).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수확한 것으로부터 첫 열매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하늘로부터 홀연히 내려와 그들이 앉은 온 집을 가득 덮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및 승천 이후에 하나님께서 허신 첫 번째 행동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성찬을 제정하신 50일 후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새로운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부여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성령

성령께서는 교회에 속한 각 지체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3,4절).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어로 어느 곳에서도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는 영이 시 주지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고후 3:17). 이제 교회는 하늘의 언어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성령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빛과 같이 확신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진리를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고,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고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구원의 보증이신 성령

초대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임한 성령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에 대한 인침이요 보증이었습니다(고후 1:22 참조). 에베소서 1장 13, 14절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고 안전한 것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쁨에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시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간직하게 됩니다.

성령을 굳게 하지 말라

성령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보증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뵈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처럼 귀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성령을 굳게 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굳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엡 4:30).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임하실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실 때, 그분은 새로운 원리, 새로운 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 마음대로 행지 않게 되고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게 되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게 됩니다. 우리의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무는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일 안에서, 그리고 모든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요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요 16:13).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요 14:26).

성령과 동행하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닌 성령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어야만 하며 예수를 따라야만 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롬 8:16).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성령이 거하시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면, 우리는 끝없는 성령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하고 신령한 일들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라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고전 2:14). 하나님의 말씀의 참됨을 부정적으로 의심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교인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겠단 말입니까?’라고 말하는 것을 매우 자주 듣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거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신령한 일들을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거하신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믿기 어려운 일들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순절은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임하신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성령의 강림을 기점으로 초대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의 강림은 신자들로인한 우리가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하여 하늘의 새로운 능력을 힘입고 있다는 신조입니다. 성령께서는 새 언약 안에 있는 생명의 특창으로서 구속의 새로운 모델을 수립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 기이한 사랑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이 날을 기념해 봅시다.

◆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기 간	선교회	팀	팀 장
10월 15일(수)~10월 24일(목)	K	8교구 5지역	박승길

◆ 지난주 도착한 선교팀

기 간	선교회	팀	팀 장
10월 6일(월)~10월 15일(수)	G	17교구 8지역	김만중

*선교 위원회 방침으로 인하여 국기봉은 밝히지 않습니다.

만남의 목적

정 회 정 (스리랑카팀 교사)

우리는 만남을 가집니다. 어떤 때는 행복한 만남을 또 어떤 때는 미련 없이 버려도 좋은 만남을 가집니다. 그런 생각과 결론을 내리고 행동을 하기까지는 시간이란 재료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대화하다 보면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어떤 행동을 하나요?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 골몰하다보면 어느 순간 멀어져 버릴지도 모르기에 판단을 빨리 내려 주님을 소개하며 손을 잡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만남을 허락하시고 또한 날마다 만나주십니다. 여러분은 이 먼 나라에까지 온 스리랑카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주님을 알기 위해 이 땅에 온 그들을 기쁘게 만나는 일과 평안하게 헤어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떤 만남을 이루며 살아가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과의 모임과 만남 속에서 주님을 소개하는 일만 아니라 사람이며, 이런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나와 만나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소중한 만남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스리랑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다 해도 나는 괜찮습니다. 내 마음 속에는 소중한 꿈이 있고 주어진 환경에서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그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무리 큰 파도가 밀려와도 나는 행복합니다. 그들도 든든한 믿음의 밭줄을 걸었고 주의 사랑이 밭을 깊이 내렸으니 이 세상에는 의지할 곳이 없어도 그들은 괜찮습니다.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그들의 나라가 주님 품으로 돌아오리라는 것을 알기에 나는 지금도 주님의 꿈을 소망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미워해도 신뢰와 사랑의 힘은 크고 완전히 언젠가는 이것이 의심과 미움을 이기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갈 길이 멀고 험하다 해도 그 길을 달려가는 동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열심히 인내로 걸어간 언젠가는 밝고 좋은 길을 만날 것을 알기에 감사합니다. 언젠가는 주님을 아름답게 만날 때가 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때를 기다리며 날마다 주님 안에서 그들을 만납니다.

사도행전을 묵상하며 ②

이영광을 하나님께

우리는 종종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혹은 "하나님이 하셨죠"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본다. 대체로 연예인들이 연가성이나 가수상을 받았거나 좋은 일을 해서 칭찬 받은 사람들이 많아서 할 때 하는 말이다.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그 책사한 춤을 잘 추게 하고, 정말 하나님이 불꽃을 부추기는 드라마에서 연기를 잘 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은 이렇게 한다면 꼭 된다는 것이 아니다. 정말 하나님을 드려내고 싶다면 사도행전 3장을 보라.

베드로는 앉은뱅이를 일으키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그 때 베드로는 뭐라고 했는가? 절름발이 이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했는가? 황당하게도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바로 십자가를 설명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중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자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정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행 3:12b-13b). 사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는 상황에 맞지 않는 어색한 말을 하고 있다. 분명히 그게 '아, 필요.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시다'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는데 너희들이 그를 죽였"하고 말하고는 그의 메시지가 되심을 예언한 구약부터 부활, 재림에 이르기까지 정확한 설교를 늘어놓았다. 이렇듯 십자가를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선교일지 (3)

브레이너드는
인디언들을 대성
으로 한 선교에

서 무엇을 말해야 하며, 어떻게 전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결국 이 선교가 많은 심령을 회개시키고 주님에게 돌아오는 놀라운 결과로 끝났을 때, 그는 십자가만을 전했던 사역이 그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며 은혜의 사역이 되었는지를 깨닫는다.

브레이너드는 사도행전 10장을 읽으면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한 설교가 당시의 다른 설교자들과는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신축히 설교의 주제로 무작지킨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베드로가 설교 대부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고 있다는 것에 놀랐다. 그 후, 브레이너는 베드로의 설교에 익숙해졌고 자신의 설교 주제 역시 늘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 그가 어떤 본문 말씀을 설명하고 예증하여도, 결국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졌다. 만일 그가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영화로움을 설명하고자 했다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뿐임을 자연스럽게 설명하게 된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비참한 타락의 형편을 깨우쳐 주고 심을 때, 우리의 죄와 죄의 세력에서 구속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전했다. 만일 하나님의 율법과 그 율법을 어기고 사는 우리의 모습을 전하고 싶으면, 만능 모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그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때론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없거나 그럴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복음을 바로 전할 때도 자연스럽게 은혜가 싹 솟듯 솟아오르기도 한다.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 죄인들은 한없이 갈급한 상태에 있었기에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었던 것이다.

그는 인디언들에게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전혀 몰랐다. 그렇다고 해서 듣기 쉽고, 말하기 좋은 어떤 철학, 윤리, 도덕, 사상을 가르치지도 않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다른 것은 물론 채 십자가와 예수님만 전하려는 모습을 기뻐하셨다. 인디언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죄인들을 깨우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설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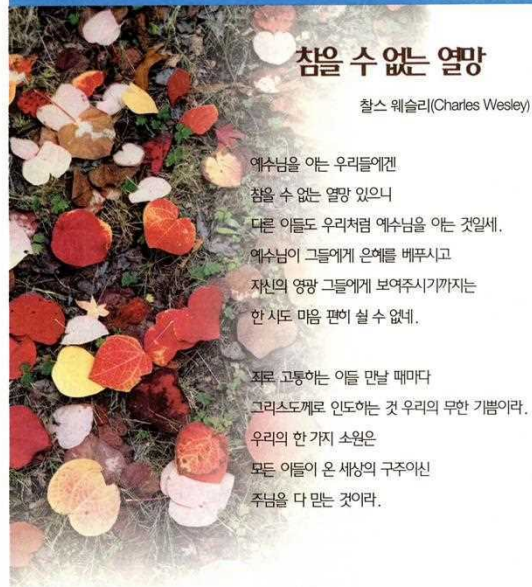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롬 1:16).

(원정실 기자)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기 때문이다. 베드로에게는 온통 복음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만약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미소를 한 번 지어보이고 "이는 하나님이 하셨도"라고 떠날 것만 같았다면 사람들은 베드로를 칭송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의 인기는 차츰났을 것이다. 하지만 그 자라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인류를 구원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병을 고쳐주는 하나님으로 끝나 버렸을 것이다. 아아, 하나님이라는 말은 신경도 쓰지 않고 베드로를 찾아다녔을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모양새는 변형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확실하게 드러내는 방법, 복음을 전하였다.

이 일로 베드로는 욕에 간했다.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한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 창피하잖아, '쌍방이 아니잖아', '한 마디만 하자', '교회 다니세요, 좋아요.'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자. 체면을 먼저 생각하지 말자. 하나님을 그저 돈 주는 하나님, 병 고쳐주는 하나님 정도로 만들지 말자.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하여 십자가를 온전히 선포하자. 지금부터 시작해보라. "예수님요..." 창피한가? 그분은 당신을 위해 죽으셨다. '당신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 그렇게 살자.

(박진성)



참을 수 없는 열망

찰스 웨슬리(Charles Wesley)

예수님을 아는 우리들에게

참을 수 없는 열망 있으니

다른 이들도 우리처럼 예수님을 아는 것일세.

예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신의 영광 그들에게 보여주시기까지는

한 시도 마음 편히 쉬 수 없네.

죄로 고통아는 이들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 우리의 무한 기쁨이라.

우리의 한 가지 소원은

모든 이들이 온 세상의 구주이신

주님을 다 믿는 것이라.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1. 특별히 사모하는 찬송과 그 찬송에서 어떤 은혜를 받는지 말씀해 주세요.
찬송가 20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를 참 좋아합니다. 가사 내용처럼 이 세상에서도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오직 주만 바라며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이 내 삶의 목표입니다.
2.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왔는지, 또 찬양사역은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부친이 목사님이어서 어릴 적에 풍금으로 반주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쉬지 않고 오르간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는 교회에서의 섬김이 생활의 중심이 되어, 일주일 중 셋째는 주일을 준비하는 기간이 되었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동안 찬송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영적인 찬양을 하기를 원합니다.
3.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사 43:21)라는 말씀을 자주 묵상합니다. 저를 찬양 반주자로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섬기는 자세로 찬양 하려고 합니다.
4. 기도제목들 말씀해 주세요.
영육이 강건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백국옥 집사
할렐루야 찬양대 반주자

(임해원 기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내가 그리스도도 믿어오니 우리를 자기와 확복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확복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확복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시 아니하시고 확복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고후 5:18-19).

구원의가시

방수길 (집사, 12교구)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내게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형님과 방언도 받았었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형수님이 있었습니다. 애연가이며 예수가인 형님은 예수님과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제가 변화된 것까지도 못 마땅해 했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씨가 안 먹혔죠.



그런 형님을 위해 기도를 계속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형님은 갑자기 각혈과 하혈을 하셨습니다. 진찰 결과 위암으로 판정되었고 빨리 큰 병원으로 옮기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두 곳의 환부에서 출혈이 일어났습니다. 수술을 해도 장담을 할 수 없다는 말에 형님은 수술을 완강히 거부하셨습니다. 저는 이 때에 싶어 예수님을 전했고 "예수님께 맡기자"고 했습니다. 형님이 예수님을 영접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순순히 응했고 일주일도 채 안되 함께 예배를 했습니다. 형님은 돌 같은 신자가 되어 마냥 복음을 받아들였고 저는 돌팔이 같은 목사가 되어 복음을 전했습니다. 형님은 병을 얻고 두 구원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형수의 신앙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중간 중간에 사단의 방해가 있기는 했지만 두 달이 지나도록 예배는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각혈과 하혈이 더 이상 없었습니다. 형수님은 형님이 아를 때 몸에서 나던 냄새가 안 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체중이 느는 것을 실감할 정도로 살이 붙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여 내시경을 통해 알아봤더니 환부의 자국만 남고 별장게 보였던 것들은 말끔히 사라져 깨끗한 피부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환부의 자국은 구원의 자국이며 믿음의 굳게 하는 시리는 '가시' 일 것이라고,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의 역사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약하여 쓰러지신 목사가 들어갑니다. 비록 부족하기 짝이 없는 예배와 기도일지라도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요, 그 예배마저 계획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로지 감사와 찬송을 드릴 뿐입니다.

경남, 강원 지방의 9개 지역에 재난 구호 활동 성도들이 직접 찾아가서 물품 전달

교회는 지난 9월 태풍 (매미)로 인해 재난을 당한 지역을 방문하여 재해 구호를 실시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성금 전달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그들과 아픔을 같이 하며 그들을 돕자는 취지에서 봉사위원회 주관하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그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재해 구호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의 단사를 통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한 후 쌀과 부식 등을 직접 전달하였습니다.

10월 2일, 10월 9일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 재난 구호 활동에는 심하게 해를 당한 경남 지방의 거제, 진주, 부산, 밀양, 양산, 마산, 진해 지역 및 강원 지방의 삼척, 정선 등 9개 지역의 노회 소속 교회를 중심으로 교인 및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구호 활동에는 총 95,510,800원이 소요되었고, 9월 28일 주일 1~5부 예배시 실시한 재난 구제 헌금은 62,461,400원입니다.

다음 주일 찬송

176장 "영화로운 주 성령"

이 찬송가는 영국의 회중교회 목사인 앤드류 리드(Andrew Reed, 1787-1822)가 작시했다. 그는 가난하고 병든 자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쏟아 영국 국민들에게 큰 존경을 받은 인물이다. 그리고 이 찬송가의 곡은 루이스 모리우 고트샤크(Louis Moreau Gottschalk)에 의하여 작곡된 것으로 그는 1829년 미국 루이지애나에서 태어나 1969년 콘서트 여행 중 세상을 마친 천재 피아니스트이다.

- 1절: 영화로운 주 성령 나의 맘에 비추사 어둠 몰아내고 밝게 하여 줍소서
- 2절: 전능하신 주 성령 성결하게 하시고 나의 맘을 괴롭힌 죄를 멸해 줍소서
- 3절: 화평하신 주 성령 슬픈 맘에 오서서 온갖 괴로 없애고 기쁜 맘을 줍소서
- 4절: 신령하신 주 성령 나의 맘에 계시사 광명된 길 고지고 홀로 주만 함소서 아멘.

(찬양위원회)

새·가·족·을·환·영·하·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248	김선영	청년1부 순속회(17)	1253 김태만	19 청년1부	1258 김용갑	19 대학부	김보은(19)				
1249	정원호	3 청년1부 이순연(1)	1254 최효섭	19 청년1부 정선희(17)	1259 최유리	19 고등부					
1250	김영웅	7 청년2부 김윤숙(9)	1255 임동주	19 청년1부 임금순(1)	1260 이정원	19 고등부	김신영(8)				
1251	여현수	19 청년2부 박용경(2)	1256 권유미	19 청년1부 김해솔(1)							
1252	박현진	19 청년1부 박현희(19)	1257 이상희	19 대학부	1261 정희정(17)						

※ 총회교회와 한 교회가 되는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의 고백

김 명 호 (유년부 교사)

예수님의 사랑

안녕하세요.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돌볼 받고 있는 소년부의 김하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아무 대가 없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귀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요? 이 글을 쓰는 계기로 한 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저 같으면 어딘가 숨어서 내와 죄를 지은 여러 사람들을 위해 죽어야 되나고 하나님과 우리들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은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던 예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대가 없이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만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감사왕에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니까. 또 예수님의 감사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직 어린지만 친구에게 전도를 해왔습니다. 아직 결실을 맺진 못했지만 꾸준히 기도와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는 그 친구의 마음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는지, 제가 선물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친구를 전도하고 있는 것도 계속 제시기 때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친구에게 전도한 것은 예수님이 내 맘에 오신 것이겠지요? 그럼 여기서 잠깐 퀴즈를 낼게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또 예수님이 집을 지었나요?

김 하은 (소년부)

교사양성부 교육을 받으며

제4강 성경 교수법

세상의 선생님들은 순간의 처세를 가르칩니다. 앓을 받는 대가로 전달합니다. 학생들을 내려다보며 설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영원한 천국을 가르치십니다. 중심에서 우리나오는 어찌할 수 없는 사랑으로 전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것은 굴복이고 패배이지 선생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십자가의 방법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열매가 맺힙니다. 이것이 교사로서 성경을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요 13:14).

우리는 선생이 되기를 좋아합니다. 단 위에 설 때 학생들이 우리를 보면 자긍심이 생깁니다. 누군가에게 "선생님" 하고 불리지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내 존재가 가치를 인정받는 것 같습니다. 어찌가 으쓱해지고 턱이 올라갑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가르치는 자의 권위를 착각해서는 안됩니다. 선한 목자는 따로 계십니다.

주의 나라는 왕정입니다. 상·하의 질서가 있고 그에 따른 권위가 있습니다. 제사장, 선지자, 사도, 목사, 장로, 교사도 다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위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모세가 홍해를 갈랐습니다. 정말 모세가 홍해를 갈랐습니까? 능력 주시는 자는 따로 계십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모세가 능력을 받아서 행한 것도 아닙니다. 능력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보기에 엄청난 능력이지 하나님 입장에서 그 지극히 작은 것일 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누가 의롭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이가 의롭습니다. 그런 누가 권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권위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여기 저기 선을 긋고 다니는 것일까요? 그런 힘을 말하는 것일까요? 권위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주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보여 주려고 하지 말고,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주의 나라는 죽어야 사는 십자가의 법칙이 있고, 이 법칙 안에서 교사로서의 권위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권위로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딤후 1:11).

(함대원 기자)

저는 작년 8월에 군 복무를 마쳤습니다. 군 생활 동안 교회학교 봉사를 꼭 하고 싶었는데 제대하고 나서야 유년부에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용성씨와 해리를 만났고, 올해에는 10명의 어린이들을 만났습니다. 상현이, 현우, 민태, 희섭이, 성민이, 희진이, 성은이, 민주, 시은이, 저는 지금 대학생이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아이들에게 많은 관심을 쏟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예쁘고 사랑스러운 어린 영혼들의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귀한 시간인지 알고 있습니다. 어릴 적에는 교회 선생님이 심방 오신다고 하면, 신나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해서 어머니 뒤에 숨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반 아이들에게 그런 기억을 전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10월 26일에는 새 친구 초청 잔치가 있습니다. 저희 반은 연초에는 그러저럭 팬들은 출석률을 유지하다가 지금은 절반밖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새 친구도 오면 참 좋겠지만 제 바람은 우선 잃은 양을 찾는 것입니다. 열심히 출석하는 친구들이 "우리 반은 왜 100% 출석을 못 해요?"라고 물어오면 할 말이 없습니다.

얼마 전 유년부 목사님께서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선생님 보다,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선생님이 되시길 바랍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단시 간식 잘 사다주고 재미있게 놀아주는 선생님이 되기 위해 노력해 온 것은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예쁘고 사랑스러운 어린 영혼들이 부족한 선생님을 만나 주님을 알아가야 할 소중한 시간에 주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어차나 격정입니다. 나중에 그 책임을 물으시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예쁘고 사랑스러운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아이들을 사랑하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 명 호 (초등부 교사)

내게 주는 은혜로

고집 세고 성격 급한 제가 주일학교 교사로서 어린 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다보니 오히려 저의 모습이 날마다 조금씩 변화되어 갑니다. 하지만 장난꾸러기들의 예뻐 드리는 말을 보고 있을 때면 어느새 보이고 싶지 않은 저의 자아가 드러나고 맙니다. 그 순간 '나의 모습을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가 막힐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주님은 늘 불순종하고 부끄러운 것 무성인 나를 찾아주시고 기다려 주시는데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주님 미련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아이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되게 합니다. 그리고 야단을 맞을 때도 몇 분이 지나지 않아 다시 장난치고 있는 아이들을 보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소를 짓고 맙니다.

예배와 성경 공부 끝나면 저처럼 교사설로 돌아오지만 그럼에도 내가 주일을 기다리는 것은, 주일 아침 일찍 주님 앞을 기쁘게 달려나오는 것은 이 어린 천사들에게 주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아이들을 통해서 나의 부족한 믿음이 자라고 나의 모난 모습이 둥글어지기 때문입니다. 열 명의 아이들의 모습을 각각 다른 색이지만 이 개성들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무지개 색깔을 만들어 갑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셨다면, 내적으로는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처럼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천사도 호모하는 교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나의 자아를 날마다 버리면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려 합니다. 참 사랑을 전해 줄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되려 합니다.

수정명	국립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류병희	이종철	김영훈	여국근	김교섭
42곡	52곡	52곡	52곡	112곡
안장득	방영일	나영평	정진호	김용태
대부분	52곡	52곡	72곡	12
고광환	최기찬	김익환	김정삼	장 훈
12곡	12곡	12곡	32곡	12곡
임원덕	이석식	최종철	하종현	최치원
12곡	12곡	12곡	12곡	12곡
이태복	정용선	안영호	이성진	조규호
최영진	조호남	교육문화재단		142곡
최성규	이재영			12곡
12곡	12곡			

■ 남전도서사 이행희 (가제)

■ 여전도서사

정영인	신동주	윤인국	한영권	김연식
92곡	42곡	52곡	122곡	72곡
홍순애	이옥주	김말자	이남진	김정연
102곡	62곡	52곡	62곡	132곡
조옥자	강덕필	김경선	최영희	최무실
72곡	122곡	22곡	22곡	112곡
전은희	김영선	김경자	이수경	
172곡	122곡	152곡	192곡	

빛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소서.

■ 위임목사 김성관

김기철	김은조	노광헌	오진국	이학박
신아영	김정현	양희자	고국영	고국영
최대현	엄범철	강모용	이 훈	남승우
정용석	김영길	문용주	조인제	김영주
최두갑	김진태	이창호	차신득	김광남
이준식	이명훈	안종욱	임무현	최기홍
이경재	전종훈	전용필	이정우	김진태
황영일	한승규	김영주	김기하	한철원
이형수	안동현	황의만	김구현	최재덕
이계인	박덕암	이대식	정태두	박용규
권민욱	조현환	배준식	김영달	이성호
박진석	최희조	노영환	박진국	전지근

수정명	국립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류병희	이종철	김영훈	여국근	김교섭
42곡	52곡	52곡	52곡	112곡
안장득	방영일	나영평	정진호	김용태
대부분	52곡	52곡	72곡	12
고광환	최기찬	김익환	김정삼	장 훈
12곡	12곡	12곡	32곡	12곡
임원덕	이석식	최종철	하종현	최치원
12곡	12곡	12곡	12곡	12곡
이태복	정용선	안영호	이성진	조규호
최영진	조호남	교육문화재단		142곡
최성규	이재영			12곡
12곡	12곡			

■ 남전도서사 이행희 (가제)

■ 여전도서사

정영인	신동주	윤인국	한영권	김연식
92곡	42곡	52곡	122곡	72곡
홍순애	이옥주	김말자	이남진	김정연
102곡	62곡	52곡	62곡	132곡
조옥자	강덕필	김경선	최영희	최무실
72곡	122곡	22곡	22곡	112곡
전은희	김영선	김경자	이수경	
172곡	122곡	152곡	192곡	

구분	시간	장 소	구분
영 아 부	I 오전 9:00 II 오전 10:50	교육관 110호	청년 2부
유 아 부	I 오전 9:00 II 오전 10:50	교육관 201호	청년 1부
유 니 부	I 오전 9:00 II 오전 10:50	제2교육관 307호	청년 3부
소 중 부	오전 10:30	교육관 1층	소 중 부
초 중 부	오전 10:30	교육관 407호	신선가정부
소 년 부	오전 10:30	교육관 507호	신 선 부
중 등 2부	오전 9:00	교육관 301호	예배부
중 등 2부	오전 9:00	교육관 401호	덕 아 부
중 등 3부	오전 9:00	교육관 501호	새가족부
고 등 부	오전 9:30	제2교육관 4층	출현어인미집
대 학 부	토.오. 4:00	제2교육관 4층	청년생영양교육
청년 1부	오전 11:00	제2교육관 4층	내재교회전신부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O' clock Worship Service, and Sri Lanka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 clock Worship Service.

© 2007 The Authors
Journal compilation © 2007 Blackwell Publishing Ltd